

대형 소조상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 석심 소조상론 -

김지호

- I. 머리말
- II. 當麻寺 本尊의 수리
- III. 白鳳, 天平時代 소조상의 제작기법
- IV. 石光寺 石佛
- V. 부여 정림사지 석불
- VI. 맺음말

일본 와세다대학교 아이즈 아이치 기념 박물관(會津八一記念博物館)

주요 논저:

「當麻寺創建期における伽藍造營について」, 『美術史研究』 49(2011),
「當麻寺創建期の本尊について」, 『てらゆきめぐれ大橋一章博士古稀記念美術
史論集』(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13), 「中將姫信仰成立考」, 『奈良美術研
究』 14(2013) 등

대형 소조상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 석심 소조상론 -

金志虎

I. 머리말



도 1. <當麻寺 本尊>, 7세기 후반, 소조, 상 높이 222.8cm, 當麻寺 金堂 毛利久編, 『大和古寺大觀』, 2 當麻寺(東京: 岩波書店, 1978)

일본의 다이마데라(當麻寺)는 奈良縣 서남에 위치하고 있는 二上山의 동쪽 기슭에 세워졌다. 경내에는 7세기 후반에 제작된 遺物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 다이마데라의 역사는 7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언급되고 있다. 남향의 金堂 內陣에는 회반죽으로 만든 須彌壇이 만들어져 있으며 수미단의 중앙에서 약간 북쪽으로 수미산형의 대좌가 있고 그 위에는 현존하는 일본 最古의 丈六 소조상인 彌勒佛坐像(이하 當麻寺 本尊) 도1을 본존으로 안치하고 있다. 현재 불상의 크기가 222.8cm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丈六佛(坐像의 경우는 약 240cm)의 크기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螺髮이 결실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이마데라 본존은 처음부터 장육불로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이마데라 본존은 다이마데라의 창건시기인 7세기 후반에 제작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재질이 대좌와 같은 소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재의 위치에 안치되었다고 생각된다.

고대 동아시아의 불교사원에서는 소조상이 많이 제작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존하는 소조상은 극히 드물다. 특히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있어 2m를 넘는 대형 소조상은 다이마데라 본존을 비롯해 아스카(飛鳥) 오카데라(岡寺)의 <如意輪觀音像>(상 높이 458.1cm)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이마데라 본존에 관한 문헌사료도 모두 가마쿠라(鎌倉) 시대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작 당

시의 기법을 전하는 사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친 수리가 불상의 표면 위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이마데라 본존의 내부구조 등 제작기법에 대해서는 유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다이마데라 본존의 과거의 수리 상황을 검토하고 하쿠호(白鳳) 시대와 덴표(天平) 시대에 만들어진 일본 소조상의 제작기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다이마데라 주변의 사원에서 출토된 석불을 참고로 다이마데라 본존의 제작기법을 검토하고 다이마데라 본존과 같은 제작기법으로 만들어진 한반도의 대형 소조상에 대해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當麻寺 本尊의 수리

다이마데라 본존의 수리는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잡지와 보고서에 간략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을 뿐 이에 관한 정식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다. 수리에 대해 언급한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 1911년에서 1912년에 걸친 수리내용이 간략하게 수록된 『日本美術院彫刻等修理記録Ⅱ』¹, 1959년의 수리내용을 소개한 西川新次の 「當麻寺金堂試考」², 그리고 1977년의 수리내용을 다룬 松島健과 河原由雄의 『當麻寺』³가 있다. 위의 『日本美術院彫刻等修理記録Ⅱ』, 西川の 「當麻寺金堂試考」, 그리고 松島·河原의 『當麻寺』를 참고로 다이마데라 본존의 수리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日本에서는 1897년에 「古社寺保存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 해인 1898년부터 岡倉覺三(岡倉天心) 등에 의해 日本美術院 第二部(奈良美術院)의 전국적인 불상수리가 실시되었다. 日本美術院에 의한 불상의 수리기록은 新納忠之助의 집안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日本美術院이 1945년 이후 조직을 재편 하면서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가 수리기록을 인수 받게 되었다. 이에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는 1900년부터 1944년까지의 日本美術院의 수리기록을 정리하고 분류하여 修理圖解와 解説書 등으로 편집하였다.⁴ 이것이 1975년 이후부터 간행된 『日本美術院彫刻等修理記録』이다. 이 기록에는 1911년과 1912년에 이루어진 다이마데라 본존의 수리내용도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이마데라 본존의 수리보고는 불상, 대좌, 광배로 분류하여 서술되었다. 그 중에 불상은 소조상인 관계로 인해 해체가 불가능하여 부분적인 수리에 머물렀다고 한다. 다이마데라 본존의 파손된 부분과 수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編, 『日本美術院彫刻等修理記録Ⅱ(解説)』(奈良: 國立文化財研究所, 1976), pp. 54-55;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編, 『日本美術院彫刻等修理記録Ⅱ(圖解)』(奈良: 國立文化財研究所, 1976), pp. 112-115.
2 西川新次, 「當麻寺金堂試考」, 『考古學雜誌』 46-2(1960), pp. 64-69.
3 松島健·河原由雄, 『當麻寺』(大阪: 保育社, 1988), pp. 87-88.
4 小川修三, 「序」,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編, 『日本美術院彫刻等修理記録Ⅰ』(奈良: 國立文化財研究所, 1975), pp. 1-2.

먼저 불상을 보면 엉덩이와 양 무릎에 구멍이 있어 살펴본 결과 언제 수리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잡한 흠으로 후세에 보수를 하였기에 우선 조잡한 흠을 걷어 내고 새로 점토를 넣어 절반 정도를 막은 다음, 그 위에 상태가 온전한 부분과 같은 흠으로 보강을 하고 색감을 조절하였다. 또한 얼굴과 머리, 가슴 등에는 마포가 물고기 비늘처럼 들려 있었기 때문에 漆을 사용하여 마포를 붙이고 金箔을 입힌 후에 표면의 색감을 조절하였다.

대좌는 상부 뒷부분에 구멍이 있어 본존의 엉덩이와 똑같은 수리를 하였다. 또한 상부 사방의 측면이 갈라지고 벌어져 있다고 보고된 내용은 있으나 수리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정면의 옷자락과 오른쪽 측면의 옷자락 끝은 결실되었지만 수리를 통해 보완을 하고 다른 부분과 같은 색으로 마무리하였다. 대좌 하부의 양면과 그 밑의 하대의 회반죽 틀은 손실되어 있어 보완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광배는 중앙의 두광을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 약간의 손상이 보여 수리와 보완을 하고 다른 부분과 같은 색감으로 처리를 하였다고 간단하게 적고 있다.

이상이 日本美術院의 수리내용이지만 아쉽게도 내부구조에 관한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표면수리에만 그쳤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도 다이마데라 본존의 내부구조를 알아낼 수 없다.

다음으로 「當麻寺金堂試考」를 발표한 西川은 1959년에 財團法人 美術院(이하 美術院)에 의해 이루어진 수리작업에 참관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 때의 수리는 대좌의 허리와 네 모퉁이의 판자 부분에 개미로 인한 피해가 있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보면 대좌는 다이마데라 본존과 같이 소조로 되어 있지만 본존의 옷자락, 대좌 상·하부의 틀과 연꽃장식들, 네 모퉁이의 나무판자는 모두가 편백나무(檜)에 칠박을 한 것이다. 대좌의 수리는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西川이 수리과정의 참관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른쪽 뒤쪽의 기둥을 뜯어낸 결과, 기둥과 접해 있던 표면의 흠에서 불이 닿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확인되었지만 다른 세 곳에서는 불에 탄 흔적은 미미한 정도였다. 또한 대좌의 각 면에는 후대에 덧칠한 흔적이 있으며 전면에 걸쳐 마포를 바르고 보강을 하였다. 특히 왼 측면의 중앙부분이 부풀어 올라 표층부와 거친 흠 사이에 막대기가 설치되어 보강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하부의 틀과 대좌 사이에 벌어진 틈에서 소조 螺髮, 소조 연주문대 장식, 大觀通寶, 寬永通寶 등의 동전과 소형 전불의 파편 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1980년에 간행된 『美術院紀要』 5호에도 1959년의 대좌 수리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臺座 木造部の 벌레 먹은 부분을 강화, 보강”이라고 간단하게 쓰여 있을 뿐 구체적인 수리내용은 명확하지 않다.⁵ 이에 비해 西川의 보고는 매우 구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西川은 1959년의 수리 결과를 토대로 대좌의 불 탄 흔적과 보수된 상태를 감안할 때 대좌의 목조 부분은 불에 의한 피해가 있을 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고 다이마데라 본존은 나발 등이 목조로 되어 있으며 목과 왼 옆구리

5 財團法人美術院, 『美術院紀要』 5(1980), p. 107.

아래, 양 무릎 부근의 옷 주름의 표현이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제작 당시의 모습이 크게 파손되어 많은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959년의 美術院 수리에서는 불상 표면의 보수기법과 제작 당시의 소조 나발을 발견하는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이번 수리에서도 불상 내부의 구조를 확인하지는 못 하였다. 그러나 西川이 다이마데라 본존의 내부에 대해 목심을 골조로 하는 구조일 것이라고 추측한 부분은 매우 흥미롭다.

『美術院紀要』에서는 1977년의 수리에 관해 “재질의 강화, 천의 고정, 칠박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라는 내용으로 매우 짧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⁶ 이 내용 만으로는 다이마데라 본존의 어떤 부분을 수리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한편 松島健은 어떠한 자료를 참고로 하였는지 밝히지 않은채 1977년의 수리에 대해 『當麻寺』에서 자세하게 언급한다. 즉 다이마데라 본존 표면의 칠박 수리 시에 좌상박에서 소매에 이르는 부분, 양 무릎, 왼쪽 대퇴부, 양 무릎에서 대좌 상부에 펼쳐진 옷자락이 회반죽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회반죽 위에 덮여진 칠박은 上體部(상반신)의 칠박과는 분명히 이질적이며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근세의 보수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러한 보수가 이루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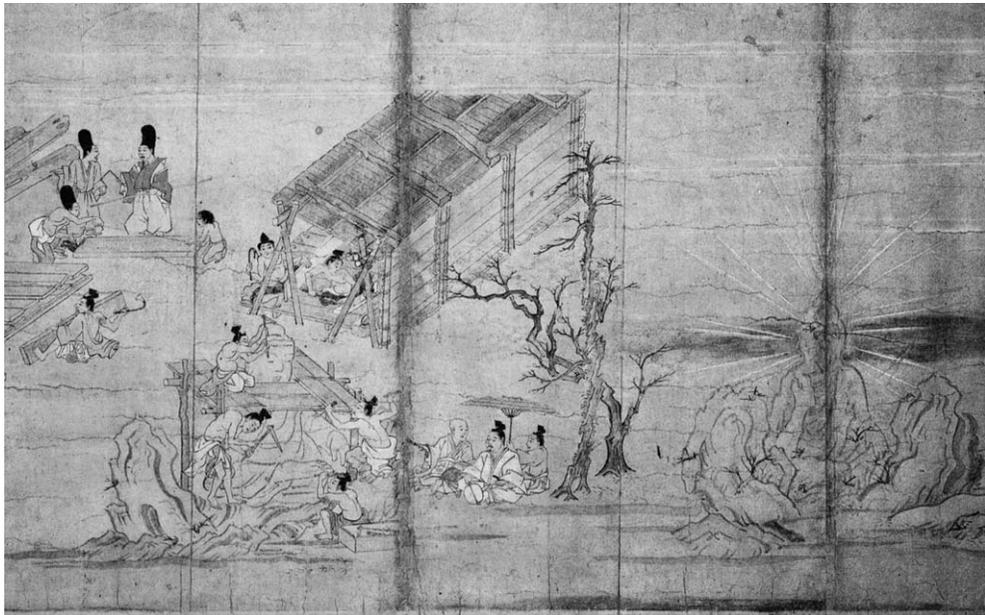
단정을 할 수 없지만 보존 상태를 보았을 때 다이마데라 본존은 크게 파손된 것으로 보였다.

1977년의 수리에서도 1959년의 수리와 같이 내부구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松島는 다이마데라 본존의 내부구조가 목심일 것이라는 西川의 주장과는 달리 큰 파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파괴는 없었기 때문에 목심보다 구조상 훨씬 견고한 石芯이 이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암석을 조각한 후에 이것을 内胎로 하고 그 위에 진흙을 바르는 기법은 중국의 敦煌 등에 존재하고 일본의 헤이안(平安) 시대 초기에 제작된 도치기현(栃木縣)의 오오야지(大谷寺) 磨崖佛群 도₂에도 사례가 확인되기 때문에 다이마데라 본존이 석심 소조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松島는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가마쿠라시(鎌倉市) 고묘지(光明寺)에 전하는 『當麻曼



도 2. 〈千手觀音像〉, 9세기, 소조, 상 높이 389cm, 大谷寺 本堂, 大谷寺 배포자료

6 財團法人美術院, 앞의 책(1980), p. 107.



도 3. 『當麻曼茶羅緣起繪卷』上卷 三段, 13세기, 紙本彩色, 세로 51.6cm, 光明寺,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編, 『當麻石光寺と彌勒佛概報』(東京: 吉川弘文館, 1992)

『茶羅緣起繪卷』上卷 三段의 거대한 암석에서 다이마데라 본존을 조각하고 있는 장면도³이 그려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장면은 불상을 제작할 당시에 석공이 관여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았다.

西川과 松島는 공통적으로 다이마데라 본존의 심한 파손과 많은 보수 흔적을 지적한다. 하지만 7세기 후반에 제작된 다이마데라 본존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불상 내부의 구조는 西川이 추측하는 목심보다는 松島가 추측한 바와 같이 견고한 석심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상을 제작할 때에 석공이 관여한 것을 보여주는 『當麻曼茶羅緣起繪卷』의 묘사는 다이마데라 본존의 내부가 석심으로 되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當麻曼茶羅緣起繪卷』은 다이마데라 본존의 제작기법을 해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가 되며 이 점을 지적한 松島의 견해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다이마데라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다이마데라가 위치한 二上山은 응회암의 산지 古墳의 石棺이나 사원건축물의 기단 석재 등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⁷ 또한 금당의 수미단에는 다이마데라 본존의 협시보살의 것으로 보이는 응회암의 석재가 남아 있다.⁸ 결국 다이마데라가 응회암의 산지인 곳에 조영된 사실과 협시보살에 쓰인 석재가 응회암인 것을 고려하면 다이마데라 본존의 내부

7 奥田尙, 『組合式家形石棺と石工集團』, 『古代學研究』 101(1983), pp. 34-38.

8 이 석재들은 좌우가 거의 같은 크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석재의 직경은 약 124cm(약 4尺 1寸)이며 그 중간부분에는 직경이 약 30cm(약 1尺), 깊이가 약 36cm(약 1尺 2寸)의 원형 구멍이 있다. 다이마데라 본존의 대좌 하단에서 원형의 구멍

에도 응회암의 석심이 이용되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Ⅲ. 白鳳, 天平時代 소조상의 제작기법

소조상은 조형재료로 점토를 사용하지만 재료의 특성상 수분을 잃게 될 경우 수축으로 인한 변형과 함께 균열이 생기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재질적인 약점이 있다. 이러한 재질상의 약점으로 인해 현존하는 소조상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고대 동아시아에 있어 소조상을 안치한 사원은 적지 않았으며 일본도 이에 있어 예외는 아니다.⁹

일본에 있어 소조상 제작을 전하는 最古의 문헌기록은 『日本書紀』大化 4年(648) 2月條에 보인다.

“阿倍大臣이 四天王寺에 四衆을 청하여 불상 4軀를 塔內에 안치하였다. 복을 겹겹이 쌓아 靈鷲山을 만들었다.”¹⁰

阿倍大臣, 즉 左大臣阿倍内麻呂(?~649)가 시텐노지(四天王寺)에 四衆¹¹을 청하여 塔內에 안치한 불상 4구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소조상에 관한 문헌기록이다. 현재 오사카(大阪)의 시텐노지에는 위의 사료에 보이는 불상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안치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小杉一雄은 호류지(法隆寺) 五重塔 初層에 안치되어 있는 塔本塑像^{도 4} 과 같은 형상의 불상들이 시텐노지의 탑내에도 안치되었을



도 4. <塔本塑像> 東面, 소조, 法隆寺 五重塔, 奈良六大寺觀刊行會編, 『奈良六大寺觀3』法隆寺3(東京: 岩波書店, 1969)

중심까지의 거리가 약 91cm(약 3尺)로 이 석재들은 본존의 험시보살상을 받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毛利久, 「當麻寺の彫刻」, 近畿日本鐵道創立50周年記念出版編集所編, 『當麻寺』近畿日本叢書 第7冊(大阪: 近畿日本鐵道株式會社, 1962), p. 105.

⁹ 龜田菜穂子, 「塑像と古代寺院」, 網干善教先生華甲記念會編, 『考古學論集 網干善教先生華甲記念』(奈良: 網干善教先生華甲記念會, 1988), pp. 790-798.

¹⁰ 『日本書紀』大化 4年(648) 2月條, “阿倍大臣請四衆於四天王寺, 迎佛像四軀, 使坐于塔內, 造靈鷲山, 累積鼓爲之.”

¹¹ 四衆은 比丘, 比丘尼, 優婆夷, 優婆塞을 말한다.

것으로 보았다.¹²

고대 일본에서 제작된 소조상 중에 현존하는 불상으로는 다이마데라 본존을 비롯하여 호류지 오중탑의 탐본소상, 同 食堂의 梵天, 帝釋天, 四天王像(현재는 大寶藏院에 안치되어 있다), 도다이지(東大寺) 法華堂의 日光, 月光, 執金剛神像, 同 戒壇院의 四天王像, 신야쿠시지(新藥師寺)의 十二神將像 등이 있다.¹³

우선 하쿠호 시대의 소조상인 호류지 오중탑의 탐본소상은 747년(天平 19)에 작성된 『法隆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에 의하면 中門의 金剛力士像과 함께 711년(和銅 4)에 제작되어 안치하였다고 한다. 현재 100점 가깝게 남아 있는 탐본소상(상 높이 50cm 전후)은 모두 711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元祿年間(1688~1703)과 최근에 만들어진 모조품들도 함께 섞여 있다. 특히 南面의 경우는 미륵불을 제외하면 모두가 새롭게 제작된 것이다.¹⁴

호류지 탐본소상의 제작기법을 보면 우선 타원형의 편백나무 판자의 둘레를 대각선으로 거칠게 잘라내어 대좌로 하고 판자의 중심에서 약간 후방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 角木을 꽂아 芯木으로 삼았다. 심목의 底部에 썸기를 대각선 방향으로 박아 힘이 사방으로 작용하게 하여 심목이 보다 견고하게 대좌에 고정되도록 하였다. 이 심목에는 塑土가 잘 붙도록 지푸라기를 감았고 지푸라기가 감긴 심목은 몸통이 된다. 팔, 손, 다리, 옷 주름 등 세부적인 표현을 필요로 하는 곳은 銅線이나 銅板으로 芯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소토는 총 세 종류의 흙이 사용되며 그 중 먼저 점성이 강한 거친 흙(荒土)을 두껍게 바른다. 거친 흙은 수분이 있어 점성이 높은 반면 수분을 잃게 되면 크게 수축이 되어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접착제로서 긴 지푸라기를 함께 넣고 섞는다. 또한 거친 흙에서 빠져나온 지푸라기는 그 위에 바르는 중간층의 흙과의 접착제 역할도 겸한다. 거친 흙이 어느 정도 건조되었을 때에 적당량의 모래흙을 섞은 중간층 흙(中土)을 그 위에 바르고 불상의 형태를 만든다. 중간층 흙에도 수축과 갈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겨와 잘게 썬 지푸라기를 함께 섞는다. 마지막으로 모래흙과 雲母가 많아 수축과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흙(仕上土)으로 마무리를 한다. 이 마무리 흙은 점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를 섞어 可塑性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마무리 흙 위에 백토를 바르고 채색을 하면 완성된다.¹⁵

12 小杉一雄, 「塑壁考」, 『東洋學報』 25-2(1938), pp. 101-102.

13 8세기에 제작된 대형 소조상으로는 法隆寺 中門의 金剛力士像과 岡寺의 如意輪觀音像이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1961년의 수리를 통해 阿形像(상 높이 379.9cm)이 9세기 전후에 전면적인 대수리가 이루어졌으며 昨形像(상 높이 378.5cm)은 16세기의 대수리를 거쳐 하반신이 塑造에서 木彫로 변형된 것을 알게 되었다. 法隆寺編, 『法隆寺重要文化財塑造金剛力士立像修理工事報告書』(斑鳩町: 便利堂, 大阪: 1965), pp. 127-132. 한편 후자는 현존하는 일본 최대의 소조상(상 높이 458.1cm)으로 원래 半跏思惟像이었으나 후대의 수리로 인해 현재와 같은 結跏趺坐로 변하는 등 頭部만이 제작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大脇潔, 『飛鳥の寺』(大阪: 保育社, 1989), pp. 209-213.

14 町田甲一, 「五重塔塔本塑像」, 奈良六大寺刊行會編, 『奈良六大寺大觀3』法隆寺3(東京: 岩波書店, 1969), pp. 5-45.

15 辻本干也, 「奈良時代の塑造技法上-造像技法考(その一)」, 『佛教藝術』 73(1969), pp. 63-66; 本間紀男, 『天平彫刻の技法-古典塑像と乾漆像について-』(東京: 雄山閣, 1999), pp. 171-177.

다음으로 덴포 시대의 소조상인 호류지 다이호조인(大寶藏院) 所藏의 帝釋天像 도5을 살펴보자. 이 소조상은 문헌상으로 1698년(元祿 11)에 작성된 『法隆寺堂社靈驗并佛菩薩像數量等』 食堂條에서 처음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食堂 內陣의 수미단 위에 안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하지만 제작에 관한 동시대의 사료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 호류지 食堂에 안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帝釋天像은 높이가 약 110cm에 둘레가 약 31cm인 녹나무(樟)를 심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심목에는 불상의 형체가 조각되어 있다. 특히 왼쪽 발을 보면 5개의 발가락이 세밀하게 조각되었다. 또한 양 손목은 별도의 목재를 사용하여 접합시켰다. 탑본소상이 각목을 심목으로 사용한 것에 반해 제석천상은 형상이 세겨진 목조를 심목으로 사용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녹나무라고 하면 6세기부터 7세기에 걸쳐 제작된 일본의 고대 목조불의 재료로서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었으며¹⁷ 편백나무와 비교하면 조각하기 쉬운 재료라 할 수 있다.¹⁸ 제석천상의 소토는 심목 위에 겨를 섞은 백색의 거친 흙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는 운모를 섞은 淡綠色의 소토에 종이를 넣은 마무리 흙이 사용되었다. 즉 소토로는 거친 흙과 마무리 흙 두 종류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마무리 흙에는 채색을 하였으나 현재는 채색한 부분이 거의 소멸되어 마무리 흙의 표면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西川杏太郎에 의하면 제석천상과 함께 食堂에 안치되어 있었던 범천상, 사천왕상도 같은 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소조상이라고 한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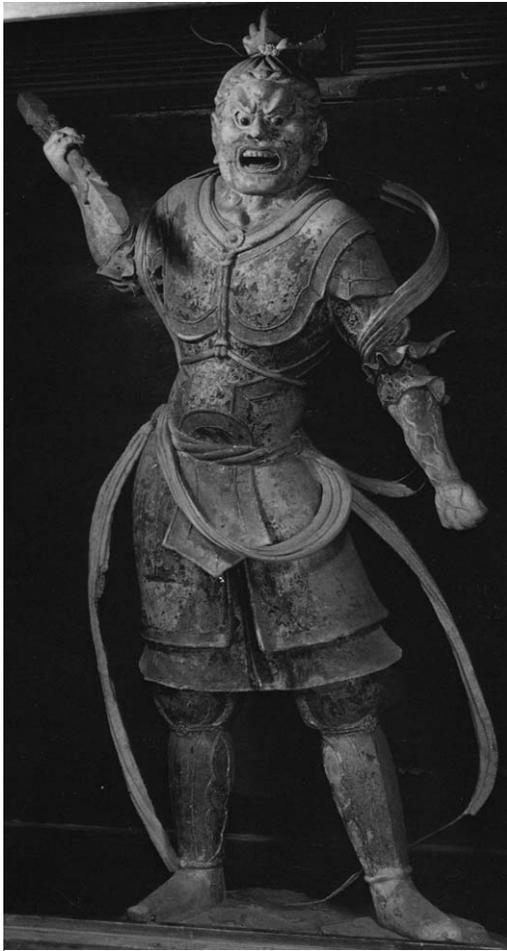
도 5. 〈帝釋天像〉, 8세기, 소조, 상 높이 109.5cm, 法隆寺 大寶藏院, 西川杏太郎, 『日本の美術 255 塑像』(東京: 至文堂, 1987)

16 西川杏太郎, 『梵天立像・帝釋天立像』, 奈良六大寺刊行會編, 앞의 책(1969), pp. 54-55.

17 예외로는 赤松이 사용된 廣隆寺의 彌勒菩薩像이 유일하다. 小原二郎, 「上代彫刻の材料史的考察」, 『佛教藝術』 13(1951), pp. 3-20.

18 大橋一章, 「クスノキ像の制作と南朝佛教美術の傳播」, 笠井昌昭編, 『文化史學の挑戦』(京都: 思文閣出版, 2005), pp. 35-51.

19 辻本干也, 앞의 논문(1969), p. 66; 西川杏太郎, 앞의 해설(1969), pp. 54-55.



도 6. 〈執金剛神像〉, 8세기, 소조, 상 높이 173.9cm, 東大寺 法華堂, 西川杏太郎, 『日本の美術 255 塑像』(東京: 至文堂, 1987)

다음으로 도다이지(東大寺) 法華堂의 執金剛神像 도6의 제작기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 집금강신상은 法華堂의 본존인 不空羂索觀音像의 등 뒤에 놓인 廚子 속에 안치되어 있다. 辻本干也는 1964년 12월에 이루어진 수리조사에서 X선 투시 촬영을 실시하여 불상 내부의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²⁰

집금강신상의 심목은 굵기가 약 5cm인 편백 나무를 사용하였으며 왼발에 하나, 오른발에 하나, 그리고 頭部에서 허리까지 하나, 즉 세 개의 목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발의 심목은 대좌의 판자에 구멍을 뚫어 고정시켰으며 허리 부근에서는 상반신의 심목에 못을 박아 고정시켰다. 또한 상반신의 심목은 어깨 근처에서 양 팔의 芯材와 연결되어 있다. 天衣와 상투, 오른 손가락에는 직경 약 0.3cm의 銅芯이 사용되었다. 소토는 붉은 색을 띠는 흙에 겨를 많이 섞은 거친 흙과, 거친 흙에 종이와 운모를 섞어 청색 빛이 나는 점토를 마무리 흙으로 사용하는 이중 구조이다. 하지만 상투, 천의, 손가락 등은 마무리 흙만을 사용하였으며 오른 팔꿈치는 거친 흙 위에 마무리 흙을 두 번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위의 집금강신상은 앞서 언급한 호류지 食堂의 제석천상과 비교해 볼 때 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자세에 맞게 복수의 심목이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집금강신상과 비슷한 사례로 신야쿠시지 本堂의 十二神將像(상 높이 160cm 전후)도 복수의 심목에 의해 불상 내부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구 중에 波夷羅大將像²¹을 제외한 11구의 신장상은 모두가 헤이안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며 현존하는 일본 最古의 십이신장상으로 매우 귀중한

²⁰ 辻本干也, 앞의 논문(1969), pp. 66-67.

²¹ 波夷羅大將像은 1854년(安政 元)의 지진에 의해 파괴된 후 補作으로 목조상이 만들어졌으나 1931년(昭和 6)에 東京美術學校 出身의 細谷而樂에 의해 현재의 소조상이 새롭게 제작되었다. 水野敬三郎·山崎一雄, 『十二神將像』, 『大和古寺大觀 4-新藥師寺·白毫寺·圓城寺』(東京: 岩波書店, 1977), pp. 42-52.

불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십이신장상의 제작기법은 복수의 심목을 세운 후에 다른 목재를 가로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다이지 法華堂의 집금강신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工房이나 같은 계열의 工人들의 의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²²

이상과 같이 고대 일본에서 제작된 소조상은 우선 목심을 이용하여 불상의 내부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위에 소토를 바르는 기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일본에 전하는 목심 소조상 뿐만 아니라 석심을 이용한 소조상도 제작되었다. 그 중의 甘肅省天水市の 동남 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麥積山石窟에는 많은 소조상이 전해지고 있어 소조상의 寶庫로 불리고 있다.²³ 높이 142m의 赤石砂岩 절벽에 조영된 맥적산 석굴에는 194개의 窟龕이 만들어져 있고 五胡十六國時代부터 清代에 이르기까지 제작된 소조상, 석불, 벽화 등이 전해지고 있다. 1952년부터 53년에 걸쳐 이루어진 麥積山石窟考察組의 조사에 의하면 현존하는 불상은 7,200여 구를 넘으며 그 중에 소조상은 3,513구가 있다고 한다.²⁴ 소조상 중에서는 불상 내부에 나무 골조를 만들지 않고 직접 절벽에 불상의 윤곽을 조각하여 그 위에 소토를 발라서 제작한 소조상도 약 290구가 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소조상을 石胎泥塑, 혹은 石胎塑像라고 부른다.²⁵ 맥적산의 석질이 불상의 세부적인 표현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바위 표면 위에 소토를 발라 세부를 모델링하였다. 이 때 표면의 소토를 두껍게 바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나무로 만든 썰기를 절벽에 박아 소토가 바위에 잘 달라 붙도록 하는 기법이 고안되었다. 맥적산 석굴의 석태소상을 대표하는 13호_{도7}와 98호_{도8}의 마애대 불은 소토가 떨어졌기 때문에 절벽에 썰기를 박은 흔적들이 확인된다.

위의 맥적산 석굴의 석태소상과 비교해 제작연대가 떨어지지만 같은 제작기법이 사용된 일본 도치기현 오오야지의 석심 소조상은 헤이안 시대에도 이 기법이 확실하게 존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한반도에서의 석심 소조상의 예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 석심 소조상이 제작되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에서도 석심 소조상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오오야지만이 아니라 II장에서 소개한 松島健의 지적과 같이 다이마데

22 久野健, 「新藥師寺の十二神將像について」, 『美術研究』 281(1972), pp. 1-15; 石川陸郎, 「附載 藥師寺 招杜羅大將像のX線寫眞による調査」, 『美術研究』 281(1972), pp. 16-18; 東京藝術大學大學院美術研究科編, 『天平塑像の心木構造の研究—新藥師寺十二神將』平成 9年度~11年度 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研究成果報告書(東京: 東京藝術大學大學院美術研究科, 2000), pp.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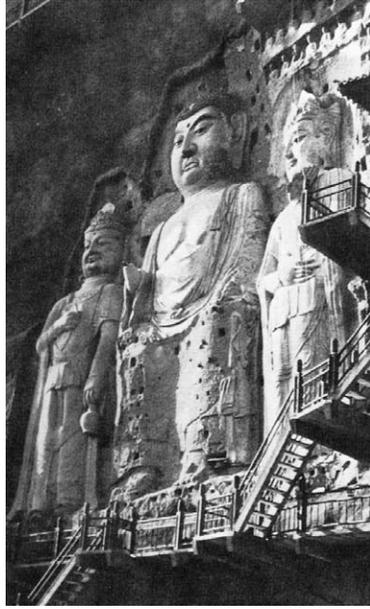
23 東山健吾, 「土と密着した中國文化—中國の塑像」, 西川杏太郎編, 『日本の美術255 塑像』(東京: 至文堂, 1987), pp. 91-94.

24 7,200여 구 중에 石胎(石芯)소조상을 포함한 소조상은 3,513구, 石彫는 25구, 石刻造像碑는 18점, 千佛을 포함한 石彫造像은 3,662구가 전해지고 있다. 孫紀元, 「麥積山彫塑藝術の成果」, 天水麥積山石窟藝術研究所編, 『中國石窟 麥積山石窟』(東京: 平凡社, 1987), pp. 201-213.

25 鄭振鐸, 「解說」, 名取洋之助, 『麥積山石窟』(東京: 岩波書店, 1957), pp. 109-120.



도 7. <마애대불>, 隋, 소조, 中國 麥積山石窟 13호, 天水麥積山石窟藝術研究所編, 『中國石窟 麥積山石窟』(東京: 平凡社, 1987)



도 8. <마애대불입상>·<협시보살입상>, 北魏, 소조, 中國 麥積山石窟 98호, 天水麥積山石窟藝術研究所編, 『中國石窟 麥積山石窟』(東京: 平凡社, 1987)

라 본존도 석심 소조상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관점의 연장선으로 IV장과 V장에서는 일 본과 한반도의 석심 소조상의 제작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V. 石光寺 石佛

7세기 후반에 제작된 다이마데라 본존은 동시대의 文獻史料 속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이후 1191년(建久 2)에 성립된 『建久御巡禮記』 當麻寺條에서 처음으로 미륵상으로 등장한다. 이 當麻寺條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즉 다이마데라의 創立에 관한 기술에는,

“이곳은 役優婆塞의 본거지로 役優婆塞의 본존인 一搵手半의 孔雀明王을 當麻寺 本尊인 미륵의 몸
에 넣었다.”²⁶

26 “此(ノ)所(ハ)役優婆塞(ノ)所ニテ, 彼本尊一搵手半孔雀明王オハシマシケルヲ, 此拈御身(ニ)奉(レル)籠也”

고 한다. 물론 다이마데라 본존은 불상 내부의 조사가 불가능한 소조상이기 때문에 『建久御巡禮記』의 기술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다이마데라 본존의 불상 내부에 다른 불상을 넣었다는 기술은 다이마데라 본존이 소조상인 것을 『建久御巡禮記』의 編者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建久御巡禮記』보다 오래된 사료는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建久御巡禮記』가 성립된 1191년에는 다이마데라 본존이 소조상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이마데라의 現本堂인 曼荼羅堂에는 中將姫가 하루 만에 만들었다는 〈綴織當麻曼荼羅圖〉(이하 當麻曼荼羅)가 전해지고 있다. 이 當麻曼荼羅와 관련된 전설은 가마쿠라시 고모지에 있는 『當麻曼荼羅緣起繪卷』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繪卷은 上卷의 詞三段, 繪三段과 下卷의 詞三段, 繪三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當麻曼荼羅緣起繪卷』은 여러 종류의 當麻曼荼羅 관련 繪卷 중에서는 현존하는 最古의 작품으로 13세기경에 만들어졌다.²⁷ 이 繪卷 上卷의 最終段인 三段에는 中將姫가 當麻曼荼羅를 만들 때 사용한 蓮絲를 염색한 것으로 알려진 染寺의 미륵불이 그려져 있다.²⁸ 染寺는 다이마데라에서 眞北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세워진 세코지(石光寺)로 지금도 中將姫가 當麻曼荼羅의 蓮絲를 염색했다고 하는 染井이 전해지고 있다. 이 세코지의 미륵불이 등장하는 장면의 詞書を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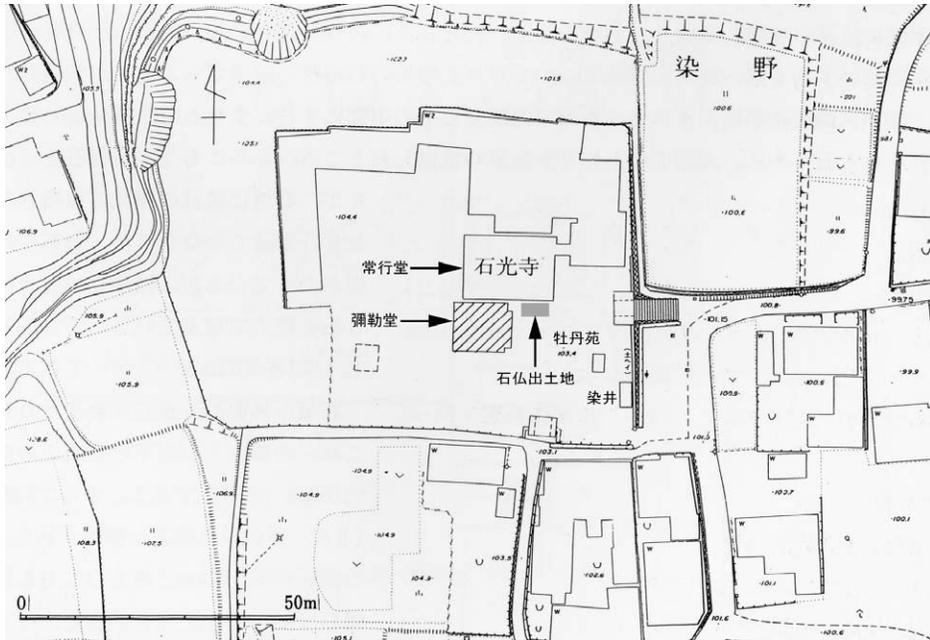
“옛날에 天智天皇의 시대에 우물 주변에 빛을 발하는 바위가 있었다. 그곳을 보았더니 바위의 형태가 불상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에 미륵 삼존을 조각하고 精舍를 지었다.”²⁹

라고 쓰여 있다. 이 사서를 나타낸 장면은 繪卷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異時同圖法에 의해 그려졌다. 즉 우선 빛이 나는 바위가 보이고 그 바위는 불상을 닮았으나 이 바위는 사서에 쓰인 삼존이 아닌 독존으로 그려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불상과 불당을 만드는 장면에서는 바위 주변에 발판도 설치되었고 그 주위에서 4명의 석공이 불상을 조각하고 있다. 발판 위에는 곡괭이와 같은 것을 사용하여 肉髻를 조각하는 무릎 꿇은 석공, 발판 밑에서는 곡괭이로 오른쪽 다리를 조각하는 석공, 끌로 왼팔의 옷 주름을 만드는 석공, 그리고 나무주걱을 이용해서 오른쪽 발의 윤곽선을 조각하는 석공이 그려져 있다.

27 河原由雄, 「『當麻曼荼羅緣起』の成立とその周邊」, 小松茂美編, 『日本繪卷大成』 24-當麻曼荼羅緣起·稚兒觀音緣起 (東京: 中央公論社, 1979), pp. 90-126.

28 『當麻曼荼羅緣起』 繪卷 중에 彌勒佛을 繪畫化한 것은 光明寺 所藏의 『當麻曼荼羅緣起繪卷』이 유일하다. 奈良國立博物館編, 『當麻寺-極樂淨土へのあこがれ-』(奈良: 奈良國立博物館·讀賣新聞社, 2013), p. 294.

29 『當麻曼荼羅緣起』 上卷 三段. “むかし天智天皇御時, 井のほとりによるハ光をはなつ石あり. その所をみせらる, その石のかたち, 佛像をなせり. よりて彌勒の三尊に彫刻して, 精舎一堂の建立をなせり.”



도 9. 石光寺 지형도,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編, 『當麻石光寺と彌勒佛 概報』(東京: 吉川弘文館, 1992)

그리고 세코지 도9에는 불탑의 心礎石과 境内에서 수집된 하쿠호 시대의 기와와 전불들이 발굴조사 이전부터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1991년에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와 當麻町教育委員會가 공동으로 현재의 彌勒堂과 그 주변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발굴조사는 석불과 관련하여 봤을 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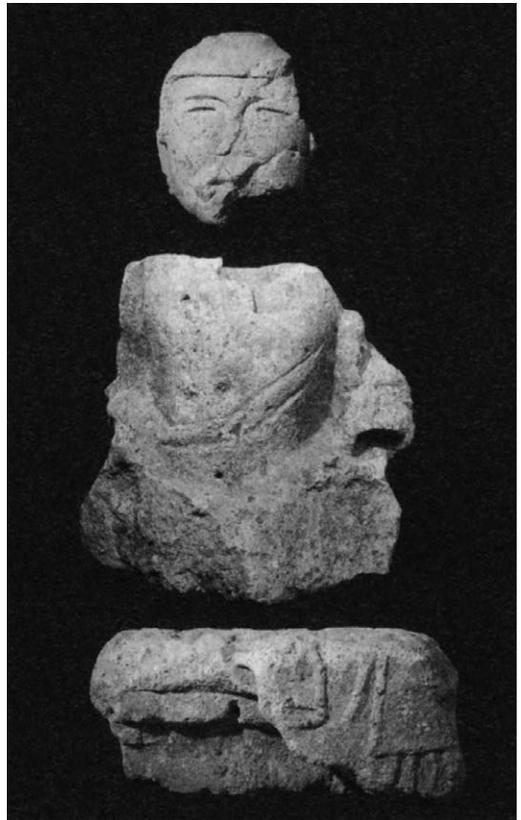
조사에서는 현재의 미륵당 기단 아래에서 초석을 설치한 건물이 발견되었다. 이 건물은 남북으로 5칸, 동서로 3칸 이상의 규모로 그 안에서 內陣, 外陣, 裳階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礎石列이 검출되었다. 내건과 외건의 경계에 석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내건에는 수미단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수미단의 일부를 절단해서 조사한 결과 2개의 초석이 수미단 아래에 완전히 묻힌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 두 초석은 다른 초석들과 함께 기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초석과 같은 높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수미단이 설치된 건물 이전에 존재한 건물(보고서에서는 總柱의 건물이라고 부르고 있다)의 초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수미단을 가진 건물은 前身 건물의 초석을 유효하

30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編, 『當麻石光寺と彌勒佛 概報』(東京: 吉川弘文館, 1992), pp. 1-46; 河上邦彦·鈴木喜博, 『石光寺の發掘と出土遺物』, 『佛教藝術』203(1992), pp. 123-127.

게 이용하면서 새롭게 지어진 것이다. 건물에서 출토된 기와와 전불을 통해서는 건물이 헤이단 시대에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1895년(明治 28)에 출판된 『大和國寶帖』을 보면 1333년(元弘 3)에 재건되어 文化年間(1804~1817)에 현재와 같은 건물이 새롭게 지어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³¹

보고서에는 창고와 같은 總柱의 건물이 하쿠호 시대에 만들어진 후에 곧바로 수미단을 가진 불당이 하쿠호 시대에 다시 건립되었고 이 건물이 헤이안 시대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어 역사가 단절되었다가 가마쿠라 시대에 재건되었다고 보고 있다. 석불의 단편 도 10 과 전불, 文樣塑壁³², 기와, 토기 등의 유물이 발굴조사에서 수집되었고 이 중 단편이라고는 하지만 환조 석불의 발견은 선례가 없는 일로 발견 당시에 크게 주목을 받았다.³³ 이 석불의 단편은 미륵당 마루 아래에 전해져 오는 裳懸座 형식의 石製台座의 단편(왼쪽 윗부분)과 한 세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석불의 복부 앞에 왼쪽 발의 뒤꿈치가 남아 있고 상현좌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여러 좌상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발견된 석불은 결여된 부분이 있으나 6개의 단편으로 되어 있는 頭部 도 11-1 와, 체간부와 양손의 단편으로 이루어지는 몸통 도 11-2 으로 나뉜다. 두부와 몸통의 높이를 합치면 145cm, 무릎의 폭이 90cm이지만 목과 양 어깨, 하반신이 대부분 결실되어 있기 때문에 석불의 크기는 현재보다도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부부터 차례대로 관찰해 보면 우선 목 부분이 결여된 두부는 얼굴의 폭이 넓고 평평한 인상을 준다. 머리는 이마의 면보다 높게 만들고 육계는 약간 부풀어 올라 있다. 이마의 상하 폭은 좁으며 중앙에



도 10. 〈石光寺 출토 석불 파편〉, 奈良國立博物館, 『特別展 當麻寺-極樂淨土へのあこがれ-』, (奈良: 奈良國立博物館・讀賣新聞社, 2013)

31 川井景一編, 『大和國寶帖』(奈良: 長尾希世, 1895), p. 16.

32 보고서에 의하면 “文樣塑壁”이라는 유물은 표면에 賣相華文이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뒷면은 평평하기 때문에 건물 벽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塑壁은 塑山水壁의 약칭으로 일본 法隆寺 五重塔 初層 四面에 설치된 塑造의 山岳표현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小杉一雄, 앞의 논문(1938), p. 86)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사용하고 있는 “文樣塑壁”이라는 유물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3 1991년 5월 26일의 見學會에 약 3천명이 참가하였다.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編, 앞의 책(1992), p. 21.



11-1



11-2



11-3



11-4

도 11-1~4. <石光寺 출토 석불 파편>,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編, 『當麻石光寺と彌勒佛概報』(東京: 吉川弘文館, 1992)

서 약간 밑으로 白毫를 둥글게 조각하였다. 눈은 윗 눈꺼풀의 선을 깊게 파냈고 눈썹은 콧마루에서 완만하게 올라간 후에 직선에 가까운 호선을 그렸다. 眼窩는 이마의 면과 높이의 차를 두기 위해 깎아 내고 이마와 안와의 경계선이 그대로 눈썹으로 표현되었다. 귀는 상하가 긴 타원형을 띠고 있으며 안쪽으로 이중의 타원형을 조각하여 나타내었다. 고대 일본에서 제작된 여래상의 귀 표현과 비교해 볼 때 석불의 귀는 상하의 길이가 매우 짧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귓바퀴의 표현은 치졸하고 귓볼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다. 얼굴의 왼쪽 관자놀이에서 오른쪽 턱까지 대각선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손상이 비교적 적지만 왼쪽은 크게 다섯 부분의 단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코, 입, 왼쪽 볼, 왼쪽 귀, 왼쪽 관자놀이는 결실되어 있다. 표면은 거칠게 마무리되어 있다.

다음으로 몸통을 보면 큰 두부에 비해 몸통의 상하 길이는 극단적으로 짧아 불균형한 인상을 준다. 어깨는 좌우로 퍼고 양 어깨를 포함한 상반신의 상부는 머리를 안정적으로 받들기 위해 수평으로 절단

되었고 그 중앙에는 머리의 장부를 꿰기 위한 구멍(직경 : 18.0cm, 깊이 : 10.1cm)도¹¹⁻³ 이 깊게 파여져 있다. 또한 오른쪽 팔꿈치 이하, 왼쪽 손목 이하는 별도로 만들었으며 오른쪽 손목부터 손바닥까지의 단편(2개)과 왼쪽 손목부터 손가락의 첫 번째 관절까지의 단편이 발견되었다. 오른쪽 팔꿈치에는 팔꿈치 이하의 부분을 꿰기 위한 홈이 만들어져 있고 왼쪽 손목에는 손목 이하의 부분을 꿰기 위한 장부구멍이 만들어졌다. 하반신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왼발의 뒤꿈치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 결과 부적을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허벅지, 무릎, 정강이, 오른발이 결여되어 있다. 몸통의 표면은 두부와 같이 까칠까칠한 상태이며 가슴과 명치, 배꼽, 꼬리뼈 등에는 엄지손가락보다 큰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다. 구멍의 깊이와 형태로 보았을 때 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구멍의 역할에 대해서는 본 장의 결론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服制는 매우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정면에는 왼쪽 겨드랑이에서 오른쪽 옆구리에 걸친 두 줄의 선을 새겨 넣었고 背面^{도 11-4}에는 옷의 끝자락을 왼쪽 어깨 뒤에서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 석불은 여래이기 때문에, 왼쪽 어깨 뒤에서 흘러내리는 옷부분이 大衣의 끝자락인 것으로 보이지만 주름 등의 표현은 확인되지 않는다.

석불은 미륵당의 전신 건물의 유구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의 常行堂와 牡丹苑 사이에 설정한 트렌치에서 발견되었다. 석불 단편이 묻힌 층위에서 가마쿠라 시대의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석불은 가마쿠라 시대에 묻힌 것으로 판명되었고 松香石으로 불리는 二上山의 응회암을 사용하였다.

석불은 두부의 정면을 보았을 때에 평면적인 인상을 주며 몸통의 상하 길이가 극단적으로 짧기 때문에 찝막해 보이는 한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평면적인 인상보다는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석불은 얼굴과 복제의 조형 표현에 있어 사실적인 표현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보고서에서는 이 석불에 대해 처음에 환조로 제작되었지만 후세에 목의 三道 주변이 부러지는 손상이 있었다고 하였다. (1차 손상) 이후 목을 다시 조각하여 추가로 장부를 만들었고 이것을 몸통의 구멍에 연결하는 수리가 이루어졌지만 또 다시 두부의 왼쪽, 후두부, 코, 턱에서 목, 양 팔, 다리 등이 크게 손상되는 피해가 있었다고 보았다. (2차 손상) 보고서는 세코지가 헤이안 시대의 화재에 의해 소실된 후, 가마쿠라 시대에 재건되었다는 발굴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1차 손상을 헤이안 시대의 화재가 일어난 시점으로, 2차 손상을 가마쿠라 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즉 석불은 하쿠호 시대에 세워진 세코지의 본존으로 안치되었지만 헤이안 시대에 1차 손상을 입고, 그 후에 수리를 거치지만 가마쿠라 시대에 다시 크게 파손되어 완전히 파기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석불에서는 하쿠호 시대의 불상에서 보이는 조형표현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석불을 하쿠호 시대의 제작으로 보고 있는 보고서의 견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일본조각사의 흐름에 있어 하쿠호 시대의 불상에서 보이는 조형표현을 확인하고 세코지의 석불이 제작된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래된 것은 欽明天皇의 시대로 백제의 聖王(聖明王)이 使者를 파견하여 불상과 함께 경전 등을 전하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 후 일본에서의 본격적인 불교

사원 조영은 587년(用明 2)에 유력 씨족인 蘇我氏が 發願한 아스카데라(飛鳥寺)가 최초이다. 『日本書紀』推古 13년(605) 4월 1일條에는 처음으로 丈六의 銅像과 繡像을 제작하기 위해 鞍作鳥(止利佛師)를 造佛工으로 임명한 내용이 적혀 있다.³⁴ 장육의 동상은 아스카데라의 본존인 석가여래상으로 후세의 보수가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도 飛鳥大佛이라는 별칭으로 아스카데라에 전해지고 있다.³⁵ 이후에 도리 불사는 쇼토쿠(聖德)太子에 의해 조영된 호류지의 불상 제작 사업에도 참여하여 7세기 후반에 再建된 현재의 호류지 금당의 본존으로 유명한 석가삼존상을 제작하였다는 내용이 광배 뒷면의 명문에 적혀 있다. 이 명문에 의하면 석가삼존상은 도리불사가 623년(推古 31)에 완성시켰다고 한다. 즉 호류지의 석가삼존상은 제작자와 제작연대가 명확한 기준작품인 것이다. 석가삼존상은 삼존이 모두 杏仁形의 눈을 하고 있으며 입은 아르카의 스마일(archaic smile)로 알려진 古拙한 미소를 띠며, 裳懸의 品字形 옷 주름 등에도 확인되는 것처럼 좌우대칭의 표현이 이루어져 있다. 이 불상을 측면에서 보면 폭이 짧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협시보살의 경우는 背面을 생략하는 등 정면에서만 감상을 할 수 있게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조형적 특징은 도리 양식(止利式 佛像)이라고 불리며 호류지의 丁戌銘〈藥師如來像〉(607)이나 戊子銘〈釋迦如來像〉(628), 夢殿의 〈救世觀音像〉(7세기 초) 등 아스카 시대의 불상 조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스카 시대에는 도리 양식의 불상들이 많이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舒明天皇(593?~641, 629~641 재위)의 시대가 되면 推古朝(592~628), 舒明朝에 隋와 唐에 파견된 遣隋使, 遣唐使, 留學僧, 留學生들이 귀국을 하게 된다. 그리고 天智天皇(626~672, 668~671 재위)은 재위 중(皇太子³⁶ 시절도 포함)에 다섯 번에 걸쳐 遣唐使를 파견하고 그들이 귀국함으로써 일본은 국가로서의 틀을 다져갔다. 또한 그들은 당시 동아시아의 최첨단 문명인 初唐의 불교문명을 전하고 天皇에 의한 사원조영, 즉 勅願寺의 조영에 참여하였다.³⁷ 舒明天皇이 발원한 일본의 勅願寺 1호인 百濟大寺에는 九重塔을 비롯하여 거대한 목조건축이 세워졌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日本書紀』와 『大安寺緣起并流記資財帳』등의 문헌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최근 발굴된 吉備池廢寺의 유적에서도 대형건물터들이 확인되었다.³⁸ 그리고 百濟大寺의 本尊은 당시 최신의 제작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장

34 『日本書紀』推古 13年(605)4月 1日條, “天皇詔皇太子大臣及諸王諸臣, 共同發誓願, 以始造銅繡丈六佛像, 各一軀. 乃命鞍作鳥爲造佛之工.”

35 최근 일본 早稻田大學의 奈良美術研究所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飛鳥大佛의 약 70%는 제작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견해가 발표되어 주목된다. 櫻庭裕介, 「飛鳥寺本尊丈六釋迦如來坐像について」, 『奈良美術研究』14(2013), pp. 59-69.

36 7세기 중반의 일본에서 “天皇”과 “皇太子”라는 용어가 존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쟁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日本書紀』의 기사에 따라 “天皇”과 “皇太子”를 사용하였다.

37 大橋一章, 「勅願寺と國家官寺の造營組織」, 『佛教藝術』222(1995), pp. 41-61.

38 奈良文化財研究所, 『大和吉備池廢寺-百濟大寺跡-』(東京: 吉川弘文館, 2003), pp. 1-249.

육의 건칠상이었다. 이어서 조영된 勅願寺 2호는 天智天皇이 어머니인 齊明天皇(594~661, 655~661 재위)³⁹의 명복을 빌기 위해 川原宮의 舊地에 조영한 가와라테라(川原寺)이다. 가와라테라에서는 粘土로 만들어진 소조상과 전불의 단편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현재 百濟大寺에 안치된 불상은 한 점도 전해지고 있지 않아 어떠한 불상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가와라테라에서는 장육불의 엄지손가락으로 생각되는 단편과 천부상의 단편, 인물상의 머리 등이 출토되었다^{도 12}. 이 출토품들은 비



도 12. 〈川原寺 裏山遺跡 출토 소조상 단편〉, 7세기, 소조, 明日香村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飛鳥資料館編, 『日本と韓國の塑像』(明日香村: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飛鳥資料館, 1985)

39 齊明天皇은 舒明天皇의 皇后로 두 번이나 天皇에 오른 인물이다. 처음은 舒明의 死後에 皇極天皇(642~645 재위)으로 즉위한다. 그 후 645년에 일어난 “乙巳의 變”이 있은 후에 바로 남동생인 孝德天皇(596?~654, 645~654 재위)에게 皇位를 넘겨 주지만 654년에 孝德이 죽은 후에 다시 齊明天皇으로 즉위한다.



도 13. 〈川原寺 裏山遺跡 출토 소조인물상 머리 단편〉, 7세기, 소조, 상 높이 13.1cm, 明日香村奈良國立博物館編, 『飛鳥の埴佛と塑像-川原寺裏山出土品を中心に』(奈良: 奈良國立博物館, 1976)

록 단편으로 출토되었지만 조형표현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엄지손가락의 단편은 손톱까지 표현되어 있으며 여성의 인물상은 둥그스름한 얼굴로 사실적인 표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¹³. 사실적인 조형표현이 보이는 가와라데라의 불상들은 관념적인 표현에 의해 제작된 아스카 시대의 도리 양식 불상보다는 형태를 파악하려고 하는 의식이 보다 발전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7세기 후반부터는 初唐美術의 영향을 받은 불상이 만들어지게 되어 일본의 불교 조각에 있어 사실성이 싹트기 시작한다. 또한 금동불과 목조불만이 아닌 건칠상과 소조상이라고 하는 소재와 기법의 다양화도 보인다. 이러한 勅願寺의 본존이 건칠상과 소조상인 이유에 대해 大橋一章은 이러한 불상들이 초당미술의 사실적인 작품을 표현하는데 있어 손쉬운 捻塑적인 재료였기 때문에 조쿠간지의 본존을 제작하는데 있어 불상의 소재로 선택되었다고 보았다.⁴⁰ 불교 조각에 사실성이 싹트는 시기를 일본미술사의 시대구분에서는 하쿠호 시대라고 하며, 650년

전후를 上限으로, 후지와라쿄(藤原京)에서 헤이조쿄(平城京)로 遷都하는 710년(和銅 3)을 下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초당미술이 반영된 白鳳彫刻은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반에 제작된 조각들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평면적인 인상을 주며 사실성이 결여되어 있어 초당미술의 영향이 보이지 않는 세코지의 석불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대 일본 불교 조각사의 흐름에서 볼 때 하쿠호 시대에 만들어진 조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거친 석불의 표면이나 가슴 주위에 만들어진 원형의 구멍들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코지의 석불은 완성품이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에 필자는 이 석불이 다음과 같은 배경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소조상은 점토로 만들기 때문에 파손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불상 내부에 심을 사용하고 그 위에 소토를 발라 불상의 형체를 만든다. 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7~8세기에 만들어진 일본 소조상의 현존 작품 중 다이마데라 본존을 제외하면 모두가 소형 내지는 等身佛로 목심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다이마데라 본존과 같은 대형 소조상의 경우에는 점토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목심만으로는 그 중량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1300년 전에 제작된 소조상이 파괴되지 않고 지금까지 무사히 전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불상 내부의 구조가 굉장히 견고하다

40 大橋一章, 「第二部 勅願寺と律令體制化の國家官寺」, 『奈良美術成立史論』(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09), pp. 191-300.

고 볼 수 있다. 물론 대형 소조상의 유례가 거의 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작기법에 대해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필자는 다이마테라 본존과 같은 대형 소조상의 내부에는 석재를 심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다이마테라 본존의 대좌도 그 내부에는 석재가 사용되어 본존을 지탱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석심을 사용한 소조상은 거의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Ⅱ장에서 언급한 중국의 맥적산 석굴 石胎泥塑와 일본 헤이안 시대의 오오야지 석심 소조상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

세코지는 다이마테라로부터 眞北으로 5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어진 사원이고 두 사원에서 출토된 기와와 전불의 단편은 매우 흡사하며 當麻曼荼羅와 관련된 설화 뿐만 아니라 中將姫와 관련된 유물과 유적이 전해지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두 사원은 창건 당시부터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이 두 사원에서 보이는 공통점을 고려할 때 세코지의 창건 당시의 본존은 현존하지는 않지만 다이마테라 본존과 같은 대형 소조상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이마테라와 세코지에 안치된 본존은 대형 소조상으로 상당한 중량을 견디기 위해 석심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이마테라 본존의 제작기법을 논하는데 있어 세코지의 석불은 큰 의미를 지닌다.

세코지의 석불은 사실성이 결여된 표현, 표면의 거친 상태, 그리고 표면에 만들어진 여러 개의 원형 구멍을 볼 때 완성품이라기보다는 세코지에 안치된 대형 소조상의 석심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세코지의 석불은 창건 당시의 대형 소조상의 석심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헤이안 시대의 화재로 인해 손상을 입고 소토가 무너지게 되어 심만이 남았고(1차 손상) 그 후에 이 석심을 활용하여 석불의 형태로 다시 제작한 것이다. 석불의 표면에 만들어진 여러 개의 구멍들은 대형 소조상의 석심과 그 위의 소토를 접착시키기 위한 썬기를 썬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석불로 다시 제작을 하였을 때에도 이 구멍들은 그대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V. 부여 정림사지 석불

석재를 심으로 사용한 가장 오래된 소조상으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 남북조시대의 맥적산 석굴의 石胎泥塑가 있고, 새롭게는 일본 헤이안 시대 초기의 오오야지 석심 소조상이 있다. 또한 Ⅳ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세코지의 석불은 대형 소조상의 심으로 사용되었으나 파손되어 그 후에 석불로 재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Ⅱ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松島健은 『當麻曼荼羅緣起繪卷』에 그려진 장면을 근거로 다이마테라 본존의 내부가 석심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필자도 다이마테라 본존이 1300년 동안 온전히 전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석심 소조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松島의 견해에 동감한다. 이처럼 석심 소조상은 중국과 일본에서 보고가 되고 있지만 아직 한반도에서는 이에 관한 보고가 없다. 최근 한국의 학계에서 소조상의 제작기법을 논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대형 소조상의 제작기법에



도 14. <定林寺址 석불좌상>, 고려, 높이 562cm, 보물 제108호, 필자 촬영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한반도에 대형 소조상이 현존하지 않고 출토된 사례도 극히 드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한반도에서도 석재를 심으로 사용한 석심 소조상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론한다. 이에 V장에서는 한반도에 있어 석심 소조상의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의 대표적인 불교사원인 정림사지⁴¹에는 백제시대의 오층석탑이 세워져 있으며 최근에 이루어진 발굴조사에 의해 백제시대의 가람형태가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강당지에는 백제시대의 건축양식에 맞추어 새로운 건물이 최근에 세워졌으며 그 중앙에는 고려시대에 제작되었다고 전해지는 석불(이하 석불좌상) 도 14 이 안치되어 있다. 정림사지는 1940년대에 藤澤一夫 등에 의해 최초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⁴² 그 후에 충남대학교 박물관의 윤무병 등이 1979년부터 1992년에 걸쳐 발굴조사를 하였

으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⁴³ 지금까지의 발굴조사에 의하면 정림사는 백제 사비시대에 중문, 불탑, 금당, 강당이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배치된 가람으로 창건되었지만 백제의 멸망과 함께 7세기 후반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 다시 부흥하게 되지만 그 후에는 廢寺가 되어 法燈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⁴⁴

41 정림사의 명칭은 문헌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백제의 사비시기부터 정림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정림사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에 藤澤一夫 등이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太平八年戊辰定林寺大藏當草” 명의 문자기와에 의해 “정림사지”라는 유적명이 정해졌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편, 『扶餘定林寺址發掘調査報告書』(부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 p. 37.

42 藤澤一夫 등에 의한 일제강점기의 발굴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내용과 도면을 간단하게 소개한 보고밖에 없다. 藤澤一夫, 「古代寺院の遺構に見る韓日の關係」, 『アジア文化』 8-2(1971), pp. 49-63.

4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편, 앞의 보고서(2011).

44 金堂址의 기단 서북쪽 모서리와 講堂址에서는 燒土面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1980년대에 발굴조사를 담당한 윤무병은 백제가 멸망할 때 정림사도 全燒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무병, 「부여 정림사지 발굴기(發掘記)」, 『백제연구총서』 2(대전: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2), p. 404.

강당지에 전하는 석불좌상은, 1980년대에 발굴조사를 담당한 윤무병에 의하면, 강당의 주위에서 문자가 적힌 고려시대의 기와가 출토된 점과 고려시대의 기단 위에 석불과 대좌가 놓여 있는 점을 볼 때 고려시대에 강당지의 불당이 재건되었을 당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⁴⁵ 하지만 재건된 기단과 문자기와의 고려시대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석불좌상의 제작연대를 고려시대로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최성은은 석불좌상의 하대와 상대에 보이는 연화문이 고려시대의 양식이기 때문에 석불좌상도 고려시대에 제작되었다고 말한다.⁴⁶ 하지만 화려한 대좌의 조각에 비해 석불의 표면에는 어떠한 것도 조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좌와 불상을 동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석불좌상도 대좌와 같이 딱딱한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불상만이 심하게 마멸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석불과 대좌의 표면이 상이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부분이 서로 다른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이다.

정림사지에 남겨진 여러 석조유물들은 장기간에 걸쳐 노출된 상태로 전해졌기에 그 중 석불좌상만이 풍우 등의 자연적인 영향을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예로 석불좌상과 같은 화강암으로 제작되어 옥외에 장기간 노출된 오층석탑에는 중국 唐에서 파견된 蘇定方(592~667)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그의 공적을 讚한 문장이 초층 사면에 새겨져 있고 그 문자는 지금도 판독할 수 있을 정도의 양호한 상태이다.⁴⁷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제작 당시의 석불좌상의 형상은 현재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석불좌상이 사비시기, 즉 백제에서 제작된 유물이라고 생각한다.

정림사에 관한 문헌사료가 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창건 당시 정림사에 어떠한 불상들이 안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최근의 발굴조사에 의해 서쪽 回廊址와 남쪽 회랑지가 만나는 지점과 금당지에서 백 점에 가까운 소조상의 단편들이 출토되었고 이는 정림사가 소조상이 많이 안치된 사원이었을 것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⁴⁸ 특히 금당지에서는 장육불의 왼쪽 귀로 보이는 단편 도¹⁵이 출토되었고 그 뒷면에는 마포 흔이 남아 있다.⁴⁹ 정림사 뿐만 아니라 백제의 불교사원의 중심인 금당에 있어서도 어떠한 불상이 안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과 유물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례가 없다. 하지만 백제의 공인에 의해 조영된 일본 최초의 불교가람인 아스카데라는 백제시대의 사원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고찰하는데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45 윤무병, 『정림사-정림사지발굴조사보고서』(대전: 충남대학교박물관, 1981), pp. 8-12.

46 최성은, 「현종대의 석탑 조각과 그 의장」,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서울: 일조각, 2013), pp. 220-221.

47 임세권·이우태, 『한국금석문집성』 4(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청명문화재단, 2004), pp. 5-21.

48 이병호, 「부여 정림사지 출토 소조상의 제작기법과 봉안장소」, 『美術資料』 72·73(국립중앙박물관, 2005), pp. 29-90.

49 이병호, 앞의 논문(2005), p. 55.



도 15. <定林寺址 金堂址 출토 소조상 단편>(왼쪽 : 귀 단편, 오른쪽 : 불명), 이병호 제공

아스카데라는 1950년대에 이루어진 발굴조사에 의해 세 곳에 금당을 세운 사실이 확인되었다.⁵⁰ 中金堂에는 장육의 금동불을 본존으로 안치하였고 IV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도 飛鳥大佛로 불리며 전해지고 있다. 아스카데라의 조영에는 백제의 공인이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에 아스카데라는 일본 최초의 불교사원임과 동시에 백제의 사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스카데라 중금당의 규모는 東西 21.21m, 南北 17.57m로 호류지 서원가람의 금당과 거의 비슷하다. 大橋一章은 호류지의 금당에 대해 장육불을 안치하기 위한 규모로 만들어졌지만 쇼토쿠 태자와 연관된 등신의 석가삼존상이 본존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등신의 석가삼존상을 장육불처럼 안치하기 위해 큰 공간에 놓아도 작아 보이지 않게 수미좌를 이중으로 하고 천장에는 대형 天蓋를 제작하였다고 말한다.⁵¹

한편 정립사 금당지의 규모는 東西 18.75m, 南北 13.80m로 아스카데라의 중금당보다 조금 작은 규모지만 여기에도 아스카데라와 같은 크기의 장육불이 본존으로 선택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립사 금당지에서 출토된 장육불의 파편은 이 본존의 일부였을 것이다. 정립사의 본존이 장육의 소조상이었다면 대형 소조상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대형 소조상의 제작기법

50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編, 『飛鳥寺發掘調査報告』(京都: 眞陽社, 1958).

51 大橋一章, 「法隆寺美術理解のために」, 大橋一章編, 『法隆寺美術 論争の視點』(東京: グラフ社, 1998), p. 51.

과 같이 불상 내부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구조로 석심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표면을 다듬지 않은 거친 석심의 표면 위에 소토를 발라 세부적인 표현을 하였다는 것이다. 장육불의 파편 뒷면에 남아 있는 마포 흔은 불상내부의 석심과 소토가 잘 달라붙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대형 소조상의 경우 석심에 구멍을 만들고 여기에 나무 췌기를 꽂음으로서 석재와 소토를 접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법은 부서지기 쉬운 석질의 사암이나 응회암이 사용되었기에 고안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립사 석불좌상의 석심은 딱딱한 화강암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불상을 제작한 공인들은 석심에 구멍을 뚫는 것보다 표면을 거칠게 하여 소토가 석심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석심에 마포를 감아서 소토의 접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정립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백제시대에 창건되었으나 백제가 멸망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 고려시대에 다시금 부흥하게 된다. 이러한 정립사의 역사를 볼 때 금당의 본존이었던 장육 소조상도 백제의 멸망 때 건물의 파괴와 더불어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금당의 기단에 불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이 전소하였을 가능성도 있다.⁵² 금당이 전소하였다면 장육 소조상은 건물의 붕괴와 함께 무너졌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옥외에서 노출된 상태로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토는 단기간에 없어져 버리고 내부의 석심만이 남게 된다. 이 석심은 세부적인 표현을 조각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세밀한 부분에 이르는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이 장육 소조상의 석심이 강당지에 전하는 석불좌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석불좌상은 처음부터 복제 등의 세밀하고 치밀한 표현이 이루어진 완성품으로 만들어졌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금당의 본존은 백제의 멸망기에 크게 손상되어 석심만이 전하고 있었지만 고려시대의 부흥과 더불어 강당으로 옮겨져 강당지에 세워진 불당의 본존으로 다시 안치되었다. 즉 석불좌상은 백제시대의 장육 소조상의 석심이 고려시대에 재이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석불좌상은 제작 당시에 소조상의 석심이었기 때문에 세밀한 조각은 불필요하였고 표면도 거칠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후 고려시대에 새롭게 건립된 불당에 본존으로 안치되는 것이 결정된 시점에 석심의 표면을 연마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고 팔각형의 대좌를 새롭게 제작하였던 것이다. 화재로 인한 피해로 인해 창건 당시의 유물이 없었던 정립사에 있어 석불좌상은 창건 당시의 본존을 회상시켜 주는 유일한 불상이었기에, 고려시대의 사찰 부흥 때 오층석탑과 함께 상징적인 존재로서 재이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52 윤무병, 앞의 논문(1992), p. 380.

VI. 맺음말

다이마데라 본존은 해체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부 구조는 알 수 없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구조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소형 소조상의 유례를 통해 다이마데라 본존의 내부도 목심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막연히 추측되어 왔다. 하지만 다이마데라 본존이 장육의 소조상인 점을 고려하면 목심으로는 소토의 중량을 견딜 수 없다. 다이마데라 본존이 1300년 전에 제작된 이후 현재까지도 무사히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상 내부의 구조는 목심보다도 더 견고하게 제작되었을 것이다. 松島健은 다이마데라 본존을 바위에서 조각해 내는 『當麻曼荼羅緣起繪卷』의 장면과 일본 도치기현의 오오야지에 전해지는 석심 소조상의 사례를 들어 다이마데라 본존의 내부는 목심이 아닌 구조상으로 훨씬 견고한 석심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松島는 다이마데라 본존이 석심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짧은 목, 두부와 체부의 유기적인 연결이 결여되어 있으며 흉부의 뒤틀림이 있는 것은 이 부분에 구조적인 파괴가 있었다”고 하는 모순된 견해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⁵³ 이러한 모순된 주장 때문인지 다이마데라 본존의 선행연구에 있어 松島의 견해는 완전히 무시되어 왔다.

다이마데라 본존의 구조를 생각할 때 다이마데라와 여러 면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세코지로부터 출토된 석불은 큰 의미를 갖는다. 다이마데라와 세코지는 가와라데식의 創建瓦와 전불, 當麻曼荼羅와 中將姫를 둘러싼 정토신앙 등 사원의 위치관계 뿐만 아니라 유물과 신앙에 있어서도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공통점으로 볼 때 세코지의 본존은 다이마데라 본존과 같은 대형 소조상이 채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이마데라 본존의 존명이 미륵불로 전하고 있는 것과 세코지의 석불이 미륵당의 기단 아래에서 출토된 것을 보면 이 석불은 미륵당의 전신 건물(하쿠호 시대의 건물)에 안치된 본존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코지의 발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석불은 하쿠호 시대에 제작되었다고 하지만 일본의 불교조각사의 흐름을 볼 때 세코지의 석불에서 보이는 조각양식을 하쿠호 시대의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세코지의 석불은 하쿠호 시대의 양식과 맞지 않으며 석불의 표면에는 원형의 많은 구멍들이 보인다. 따라서 이 석불은 하쿠호 시대에 만들어진 완성품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창건 당시의 대형 소조상의 석심, 즉 세코지 본존의 심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 후 세코지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건물과 함께 본존은 파손되었고 그 내부에 있던 석심만이 전해져 오던 것을 불당의 재건과 더불어

53 松島健·河原由雄, 앞의 책(1988), p. 88.

54 毛利久는 「當麻寺の彫刻」, 『當麻寺』(大阪: 近畿日本鐵道株式會社, 1962), pp. 96-98에서 當麻寺 本尊과 新羅의 석불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이후에 松原三郎은 「新羅石佛の系譜—特に新發見の軍威石窟三尊佛を中心として—」, 『美術研究』 250(1967)에서 當麻寺 本尊의 원류가 근위석굴 삼존불의 중존이라고 하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當麻寺 本尊에 관한 연구사에 대해서는 金志虎, 「當麻寺金堂本尊의制作について」,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56-4(2011)를 참조.

재활용하였고 이 석심은 불상의 형태로 만들어져 새롭게 불당에 안치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석불은 결국 또 다시 파손되어 땅속으로 파기되었던 것이다.

다이마데라 본존은 毛利久에 의한 양식 검토 이래, 신라에서 만들어진 석불을 원류로 보는 견해가 오랫동안 정설로 자리해 왔다.⁵⁴ 다이마데라 본존의 원류가 신라의 석불에 있다고 하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머리, 몸통, 다리의 표현이 마치 블록을 쌓아 놓은 것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이마데라 본존의 내부가 석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견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러한 석심을 이용한 대형 소조상이 당연히 한반도에서도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정립사지 강당지에 전하는 석불좌상이 그 사례에 속한다고 간주하였다. 백제 정립사의 금당에 모셨던 본존은 석심 소조상이었으며 이 석심이 후에 강당지의 불당으로 이동되어 현재와 같은 불상의 형태로 다듬어져 다시 안치되었던 것이다. 이후 석심 소조상의 제작기법은 일본에도 전해져 응회암의 산지로 유명한 二上山에 인접한 다이마데라와 세코지의 본존을 제작할 때에 채택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當麻寺, 當麻寺 금당 본존, 대형 소조상, 石光寺, 石光寺 석불, 정립사지, 정립사지 석불좌상, 石芯 소조상

Fabrication of Large Clay Statues - Stone-core clay statue -

Jiho Kim*

Taima-dera(當麻寺) is located in the east of Futakami-yama Mountain(二上山), which lies in the west-southern part of Nara(奈良) Prefecture. It is said to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late 7th century. In Main Hall(金堂) located in the south of the Temple, dais for Buddha Image made by plaster can be found, and the oldest Jangyuk (about 240 centimetres for seated statue) clay statue existing in Japan is located in the north of dais as the Principal Buddha Image in Taima-der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tue”). It is said that the Statue was fabricated in the late 7th century, at the sam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aima-dera.

Since it is difficult to overhaul the Statue, its internal structure is unknown and argument has been not so vigorous about it. Referring to the other examples of clay statues in ancient Japan, the Statue has been considered to be wood-core. However, considering the Statue is Jangyuk statue made by clay, it is hard to imagine that wood-core could bear the weight of the Statue. It is because the core is so solid that the Statue exists until now since as old as 1,300 years ago. Mr. Matsushima claimed that the Statue is stone-core because the scroll painting of “Taima Mandara Engi(當麻曼荼羅緣起)” shows an image of carving the Statue from stone and because of the stone-core clay statue in Oya-ji(大谷寺) in Tochigi(栃木) Prefecture.

To know the structure of the Statue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e stone Buddha statue excavated from Sekkou-ji(石光寺), which is located just to the north of Taima-dera. Taima-dera and Sekkou-ji have many antiquities and faith in common, such as not only the location but also Kawara-dera(川原寺) type tile, image tile, Pure Land Buddhism including Taima Mandara(當麻曼荼羅) and Chu-jo Hime(中將姫). If so,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Principal Buddha Image in Sekkou-ji was also a large clay statue like the Statu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name of the Statue is Maitreya Buddha(彌勒佛) and that the stone Buddha statue of Sekkou-ji was found under the base of Miruk-dang(彌勒堂), the stone Buddha statue

* Aizu Museum, Waseda University

can be said to have been located in the former building of Miruk-dang (the building of Hakuho Era(白鳳時代). Excavation report of Sekkou-ji states that the stone Buddha statue was fabricated in Hakuho Era, but this is not true when the carving design of the stone statue is considered. Considering the carving design not matching Hakuho Era, the stone statue was firstly fabricated as stone-core of a large clay statue and then transformed into the stone Buddha statue after destruction of the clay surface.

It has been believed for a long time that the origin of the Statue is the stone Buddha statue fabricated in Silla Era in Korea. There are examples of stone-core large clay statues in Korea, and the Principal Buddha Image in Jeonglim temple site(定林寺址) in Baekje Era is considered to be a stone-core clay statue. These examples of stone-core clay statues came down to Japan, and were fabricated in Taima-dera and Sekkou-ji neighbouring Futakami-yama Mountain.

Keywords : Taima-dera(當麻寺), the Principal Buddha Image in Taima-dera, Large Clay Statues, Sekkou-ji(石光寺), the Principle Buddha Image in Sekkou-ji, Jeonglim temple site(定林寺址), the Principle Buddha Image in Jeonglim temple site, Stone-core Clay Statue

